

낙농가의 맥주박 수급 문제에 대한 의견

김 정 기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D목장

신록의 계절이 다가 오면서 현재 낙농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낙농인들에게 현 낙농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사료인 맥주박 공급에 관하여 한마디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하고 낙농인으로서 유우 약 2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낙농가가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요즈음 낙농산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5월의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이는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며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들의 조그마한 꿈을 일부 건전치 못한 상흔에 의하여 우리 낙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현 듯 치밀어 오르는 그 무엇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낙농인 모두가 조사료 수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렇다 할 제품화된 사료를 먹여서는 가뜩이나 인건비다, 사료값이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요즈음 수지타산이 맞을리 만무하고 궁여지책으로 소들의 기호에도, 유량증가에도 좋은 맥주박을 거의 모든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맥주박을 공급받고 있는 D유업의 판매와 S운수의 운송으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소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일부 낙농가들은 일부 약삭빠른 장사꾼의 농간에 현혹되어 2.5t 차량당 약 60,000원(운반비 별도) 하는 맥주박인데, 실제 S운수에서는 맥주박만을 전문으로 수송하는 업체로서 운송비만 받고 공급하여 주는 반면 일부 장사꾼들은 운송비에 이윤까지 붙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그것을 거래인 양 알고 먹이는 일부 낙농가들의 한심함에 분개하며, 또한 S운수에서 운반하는 맥주박은 2.5t 차량이지만 실제로는 약 3.5t 정도의 양이되는 반면 장사들의 공급량은 실제 공장에서는 3.5t정도 가지고 나와서는 자기 집에서 일부 하차하고 낙농가에게는 2.5t 정도만 공급하니 이 어찌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장사꾼에게 공급받는 낙농가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렇게 맥주박의 유통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것은 맥주박을 판매하는 D유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여년전 본인이 맥주박을 처음 공급받을 때는 실제로 낙농가인지를 확인하는 「자가사육증명서」이라는 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했으나, 요즘은 자가사육증명서가 없어도 아무나 살 수 있어 이렇게 실수요자인 낙농가 아닌 장사꾼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낙농가들은 맥주박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농가에서 맥주박을 많이 먹어야 할 시기(3~5월)에는 맥주박의 수요가 부족하여 S운수에서는 우리 낙농가에게는 적기에 공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니,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는 이유가 D유업에서 특정 장사꾼에게 맥주박을 대량 판매하고 실수요자인 낙농가에게는 소량만을 배정하여 주는 때문이며 이또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D유업 담당자에게 부탁하오니 특정 장사꾼에게 필요치도 않은 맥주박을 대량 공급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우는 처사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낙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니 이 부당한 거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맥주박 가격을 비교하면

S운수 맥주박 약 3.5t	60,000원 (17원/kg당)	} 운반비 별도
장사꾼 약 2.5t	60,000원이상 (24원/kg당)	

장사꾼에게 3.5t의 맥주박을 사면 약 77,500원 이상을 더 주고 사야만 하니 이는 공정거래에도 위배되는 처사임.